

아산뉴스

2005년 8월 25일 (목요일) 제140호

개혁자 정신으로 미래를 창조하자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고장, 서로 믿고 함께하는 도시



아산 맑은 쌀

발행인:아산시장/편집:공보체육과/우편번호:336-701/주소:충남 아산시 시민로124(온천동1626)/전화:(041) 540-2221/팩스:(041) 540-2162/http://www.asan.go.kr

아산시, 드디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최종결정 아산시, 10년간 숙꿨던 최대 현안과제 해결

아산시가 드디어 최첨단 소각장을 건립하게 됐다. 2003년 9월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장(이하 시설) 입지를 공개모집한 이래 수차례 선진시설 견학을 통한 홍보와 시민의식의 변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등으로 공개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 되고 있다.

아산시는 그동안 10여년간을 지역주민들의 갈등, 생활쓰레기의 외지처리에 따른 예산낭비등 수많은 어려움과 비난을 받아야 했고 매립장의 포화로 인한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해 악취와 해충으로 시민들이 대란이라고 여길 만큼의 고초도 겪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산시는 시민의 참여와 신뢰 없이는 결코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건립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과 급성장애 가는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급박한

현실을 고려하여 대대적이고 전폭적인 지역지원을 약속하며 시설의 입지를 공개모집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 입지결정의 가장 큰 힘은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시민들도 적극 호응, 6곳에서 지역주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시설 입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는 전문가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과 함께 전문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다.

또한 33개 사회단체, 봉사단체, 환경단체 대표들의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기간 설정 운영하는등 시민들이 이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행정절차를 이행 하므로써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설의 입지를 결정케 되었다.

아산시가 사실 지역을 위해 내건 어려운 선택에 대한 보상차원의 안센티브 역시 획기적이다.

20~50억원에 달하는 주변지역에 마을 발전기금 또는 소농사업비를 지원하며 신규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유도, 녹지공간 조성과 복지시설, 체육시설 건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지역의 명소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 아산의 관광명소로...

이와는 별도로 시설 운영시 조성토록 돼있는 주변 지역지원기금등 법규적으로 마련된 시설주변지역의 지원도 확실하게 이행 할 계획이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보여 신청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2면에 계속...)



우와! 아산신도시에 세워질 랜드마크 "사이클론" 빌딩, 대한민국 최고의 카디리

현재 시설의 입지를 결정 한 것은 시설이 완료된 2009년까지의 계획중 가장 큰 고개를 하나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르본 경주에 비길 수 있는 앞으로의 일정에 시민과 아산시가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다.

■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시설로

이를 위해 아산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다져진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주민신뢰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기 위해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친화적인 최첨단의 자원회수시설로 만드는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임을 거듭 천명했다.

1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2기를 건립 하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TMS 자동측정장치를 설치 시설의 운영결과를 측정하고 측정내용은 전광판을 통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전 시민에게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립 초기단계부터 주민대표로 구성된 감시원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시설에 들어오 오염물질을 걸러 낼 수 있는 백필터, 등 최첨단의 안전장비도 설치된다.

이와같은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시관계자는 해와 사례와 환경부가 밝힌 국내 타 지역의 시설 운영결과를 제시하면서 최첨단의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시설로 건립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표시했다.

■ 굴뚝은 있되 연기(?)는 없다

실제로 환경부 홈페이지에 2004년도 소각시설 운영 결과를 보면 다이옥신 배출량이 수치로 나타낼수 없을정도의 극미량을 기록한 곳도 다수 볼 수 있으며 환

경부가 고시한 기준치 0.1나노그램 이상을 배출한 소각시설은 한곳도 없다.

또한 최근에 건립되는 시설들은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지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고 (33개소중 27개소 82%)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독일등 선진각국들이 스가방법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두 번 째는 입지가 결정되어 시설이 건설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역이다.

아산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로 어려운 선택을 한 시설 입지 지역에 대해 보상차원의 지원계획을 확실히 이행하여 경기도 구리시가 그랬듯이 지역의 확실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도시계획담당부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로 신규 도로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녹지공원 조성과 함께 수영장, 사우나등 복지시설,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등 체육시설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말 기준 1일 140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앞으로 신도시 개발과 계속되는 인구유입으로 점점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만큼 성공적인 시설의 건립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10여년의 오랜 산고를 겪은 아산시 최대 현안 사업, 소각장 건립이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환경친화적 자원회수시설로 탄생기 위해 첫발을 뜨는 기쁨과 기대가 가슴부른 9월의 꿈이 이뤄지도록 시민과 아산시가 하나되어 끝까지 한발 한발 다가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아산관광 041-540-2468, 안내시스템 이용 하세요

시는 주5일제근무 시행등 주변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의 ARS 시스템이 틀어 박힌 도식적 관광안내면서 몇 단계의 안내시스템을 거친다면 이번에 시가 도입한 관광안내 시스템은 관광안내원과 곧바로 연결되면서 궁금한 사항을 상세하게 직접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4시간 직접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 준다. 낮에는 시의 문화관광과로 연결되고 야간시간에는 담당자 핸드폰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산시의 관광자원 전반에 대하여 생생하게 살아있는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시(24시간)안내시스템을 가동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직접 통화를 통한 정감어린 아산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관광안내 시스템 운영의 의미를 설명했다.

강당골 계곡에 상인 이용 건물 신축

시가 8대 현안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강당골 정비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함께 강당골을 생활근거지로 삼고 있던 상인들도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광역산 자락의 자연환경과 강당골의 맑은 물을 시민에게 되돌려 준다는 취지로 그동안 차량전입의 제한과 강당골 상가의 자전철거 노력, 공동위 담장제를 통한 불법상행위 단속등 상가변형회의 협조와 행정력 총동원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송악면 강당리 일원에 건물이 들어 설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7월 충청남도로부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을 얻어 냈다.

경향철골초 3개동으로 만들어 질 건축물은 8월 25일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말 영업신고를 완료하면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민간차원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원회수시설,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

보리고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업발전은 절대절명의 과제였고, 우리는 그동안 이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 그 결과 배고픔은 먼 옛날이야기 속으로 사라졌으며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까지 경제가 발전되었다. 아시아 4대 용출에서 만행이 되었으며 선진국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도 되었다. 지나온 짧은 세월에 비해볼 때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발전에 따른 부작용 역시 만만치 않다. 사회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이시구조로 말미암아 가족 관계와 인간 관계가 큰 혼동에 휩싸였으며, 도시의 노동력 수요가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불러 오기도 하였다. 특히 산업 발전의 상징인 도시화는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초래하여 사회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세 문예 역시 이전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민감하게 다가 왔다.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의 상황이 만들어낸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발전에 대한 반성은 자연스럽게 대중의 시선을 모으게 되었고, 환경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올랐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구성하고 있는 산업화와 환경보호는 참과 방패와 같은 모순적 대립의 논리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키

고 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터널 공사에 반대하여 단식 투쟁한 어느 스님의 이야기, 새만금 사업의 법정 분쟁 사건, 방폐장 건립에 따른 주민 반대 집회 등 이러한 충돌의 현상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어느 하나 종단할 수도 없는 현실이니 현대 사회의 제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쓰레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도시화로 말미암아 형성된 대단위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는 자연의 자정 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정도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시작된 근대화가 이젠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스스로의 발전 메카니즘에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연적 정화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성공을 거두어 우리의 삶에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폐수가 흐르던 시커먼 하천에는 물고기들이 노닐고 이를 따라 사라졌던 철새들이 돌아오고 있다. 거리엔 푸른 녹색 공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정의 연기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물론 상대적인 경제 불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과학 기술은 그러한 우려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쓰레기 매립과 쓰레기 소각은 토양 오염과 대기

오염의 문제로 대변되면서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었다. 매립 시에 오염된 토양은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소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대기 오염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는 매립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의 한계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의 한계는 매립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소각 방법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 공해가 없는 다양한 소각로와 소각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쓰레기는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이 시작됐다. 버리는 쓰레기에서 재활용하는 쓰레기로 인식이 바뀌면서 명칭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자원회수시설로 불리게 되었다. 더불어 쓰레기 소각이 새로운 산업으로 탈바꿈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일조하게 되었다.

이번 아산에 건립할 자원회수시설을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 아산 지역 사회 발전의 한 기점이 될 것이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건립되는 자원회수시설이기에 아산시민 모두의 삶에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심치 않으며, 21세기를 지시 행정으로 열어가는 아산시장의 이미지에도 부합하는 큰 발걸음이라 하겠다.

아산시 의회, 열심히 일하는 의회, 확실한 시민의 대변자

아산시 의회는 원구성후 20만 아산시민에게 사랑 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시민의 권리와복에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아산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시민이 참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의회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를 만들고자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나름대로 감시, 견제하는 물론 주민의 고충해결 및 상담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제4대 아산시의회 주요성과로는 비회기중에도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중심의 의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원간담회를 월2회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하였고, 매주 화요일에 시민고충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각종 민원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총 73일 동안 44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정례회시 신규 주요사업현장 및 현안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안전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감사시 지방재정담당장, 감사, 명사 및 사고이월, 예비비의 과다지출 방지를 위해 집행부에 안전재정운영이 되



▲ 의원간담회

▲ 현상방문

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남은 기간 동안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의회운영을 상임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는 물론 민주화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안전한 추석나기, 건강한 가을나기

■ 벌초 등 야외활동시 주의사항

종 류	예 방	응 급 처 치
예초기, 낫 안전사고	· 예초기 사용시 칼날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안경 등 착용	· 날카로운 것에 베이면 즉시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에 가서 치료(상처에 소주나 된장, 담배를 바르는 행위는 금물) · 작은 돌 및 이물질이 눈에 박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박거리며 눈물이 나오도록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함
벌쏘임	· 벌을 유인하는 향수, 화장품, 요란하거나 밝은 색 계통의 의복을 피함, 벌이 접근시 벌이 날라지 않도록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낮은 자세를 취함 ·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벌이 많은 장소를 출입하지 않거나 이에 그물망을 덧씌우는 것이 좋음	· 벌침을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지도록 유도한다. ·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 후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함
뱀물림	· 벌초시에는 두꺼운 등산화화를 반드시 착용, 잡초가 많아 길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나무가지나 지팡이로 미리 해쳐 안전여부 확인	· 뱀에 물린 사람을 높여 안정시킴 · 뱀에 물린 곳을 부목 등으로 고정시켜 독이 빨리 퍼지는 것을 방지

■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발열성 질환

종 류	감염경로 및 잠복기(증상)	예 방 요 령
유행성 출혈열	· 들쥐나 짐쥐 또는 실험용 쥐의 폐에 있는 한탄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 · 9-35일정도 잠복기를 거쳐 약 2-3주 정도 초기감기 증세로 오한 발열, 두통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발열기, 저혈압기, 이뇨기, 회복기의 단계이며 약 7%사망률을 나타낸다.	· 고위험군이나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과 개별적인 폭로 위험이 큰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 유행지역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 야외활동 후 귀가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한다. 가능한 피부의 노출을 피한다.
쯔쯔가무시증	· 리케치아의 일종인 쯔쯔가무시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린다 · 감염후 보통10일(6-20 또는 0-12)정도이다.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1cm 크기의 피부 반점이 생겨서 수일만에 상처를 형성한다.	· 유행성지역의 관목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것을 피한다. · 들쥐등과 접촉하는 환경을 피한다. · 밭에서 일할 때에는 긴 옷을 입도록 한다. · 야외활동 후 귀가시에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한다.
렙토스피라증	· 주로 가을철 추수기(9-11월경)에 농촌지역에서 들쥐, 집쥐, 개 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균이 배출되어 오염된 지역에서 작업중 미세한 피부상처로 감염된다. · 조기 진단으로 적기에 치료하면 쉽게 회복 될 수 있으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간이나 신장 합병증 또는 다량의 폐출혈이 동반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갑작스런 발열(38℃~40℃)과 두통, 오한, 근육통, 눈의 충혈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	· 작업시 손발 등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장화, 장갑 등을 착용한다. · 가능한 한 농경지이 고인물에는 손발을 담그거나 닿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눈의 물을 빼고 마른 뒤에 비비기 작업을 한다. · 비슷한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한다.

재난관리서비스 현장

1.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전수조사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별로 재난 위험 요인의 정도에 따라 철저한 분류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재난위험 시설물(D·E급)에 대하여는 월1회 이상, 중점관리대상 시설물(A·B·C급)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연1회 이상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상황과 위험 요인에 대하여 신속한 접수 및 대응, 수습을 위하여 24시간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 재난대응 수습·복구

-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현장지원소(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사상자의 신속한 응급 조치와 원지 이송을 위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재난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전기·가스·통신·교통·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아산시, 경쟁력 있는 농업 경영 친환경농업의 확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시는 1995년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면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경제, 사회, 산업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리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브랜드 아산 맑은쌀 생산의 품질 향상과 확실한 보증

특히 쌀농업중심으로 하고 있어 쌀농사의 육성과 기술지원등을 아끼지 않고 있어 농림부와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품종회에서 아산 맑은쌀이 2년 연속 금상 수상과 함께 지난 해에는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고품질의 아산 맑은 쌀 생산과 함께 품질의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아산시장의 품질보증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최고쌀(TOP RICE)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107농가가 참여 하고 있다.

또한 품질좋은 쌀생산 농업에서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판촉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춰 보다 차별화된 품질을 보인화된 생품으로 개발, 코엑스, 내고장 직거래 장터등을 찾아 전시와 판매 활동을 하는 등 소비 촉진에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쌀맛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저장 방법(저온저장)을 실현하기 위해 RFC지원과 수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시가 농민육성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현대인에 취향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읍면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살림은 50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친환경농업지역이며 생산자와 도시소비자가 한자리에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정보를 교류 할 수 있는 한살림 단오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60여 규모의 친환경플러스터 사업이 국비를 지원 받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생산 품목과 지속적 물량 확보등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로 아산시의 친환경 농업은 유기성품과 축산이 포함된 국내 최초의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체계를 이뤄질 것이 기대 되고 있다.

이와함께 친환경 지역축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천년초, 토마토, 청정누에식물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렵고 힘든 농업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도시민, 어린이들에게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친환경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고 있다.



▲ 시원한 그늘에서 영농교육 머리에 쏙쏙 !!

내이랴마를, 속삭아머프 버섯마를, 둔포 아산배마를이 정보화 마을로 지정되면서 수수도가나뎌 만들기, 대보름 축제, 배알아주기 체험, 전통염색체험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암민속마을에서 팥스테이 체험들을 통해 두부도 만들고 고구마도 캐보는 귀중한 체험의 장이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유희지, 공터 등을 활용에 무료 주말농장 9개소를 제공 하고 무료기술 지원과 함께 친환경 거름제공, 1회에 걸친 밭갈이 제공등 쉽고 즐겁게 밭을 일구고 자기의 작물을 재배해 보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농기계대여은행운영등 농업의 푸른신호등

한편 시는 농산물 수입 개방압력등 어려운 농촌현실을 이겨내고 생산여건을 개선해 나가자 200여원씩을 확보도 농업발전기금을 조성 저리농민의 명중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 유기농 비료와 저농도 농약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일시에 큰 금액을 들여야 구입할 수 있는 고가의 농기계 등을 농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농기계 대여 은행을 운영하고 있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또한 농기계무상수리센터는 농민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농기계부품과 수리 공구를 차에 싣고 마을을 찾아가 농기계를 수리 해주는 이동식 수리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기술과 방제시기를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전할 수 있는 순회상담도 전개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농업의 활로를 활짝 여는 판촉과 홍보에도 행정력을..

시는 생산된 우수농산물의 판매와 소비 촉진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판매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고유명칭 때가 되면 기업체의 임직원이 우수농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기업체 내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축제 기간에 전국, 지방의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아산의 우수 농산물을 소개하는 코너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벤트성 프로그램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아산 농산물의 우수성 알리는 데도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장터를 개설 운영하로서 젊은 세대들을 겨냥한 판매전략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아산장터 홈페이지-<http://www.asj.net>)도심지의 기관이나 단

체와 농촌간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농산물을 생산자에게 안겨주고 농촌을 이해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시는 이같은 다양하고 대대적인 지원들은 도시민들의 어려운 농촌 여건을 이해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으며 농민들에게는 생산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계기와 함께 활로의 물과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린이 증촌체험 - 우수노기나뎌 만들기

대여농기계 사용료 기준

구 분	기 종 명	사용료
구입단가 300만원미만	• 트랙터용 : 직파기, 원판쟁기(6면(2)), 석회살포기(4), 무논정지기, 비료살포기, 콩 탈곡기, 다목적파종기(3), 베토기(3), 배비닐수거기(3), 과수원용초제기(2) • 관리기용 : 관리기(3), 일률관리기, 휴림기, 굴취기, 휴림피복기(3), 배비닐수거기(6) • 승용관리기용 : 비료살포기, 휴림피복기, 포디머 • 경운기용 : 동력경운기, 로타리, 제초기(2) • 전기 : 공 탈곡기(4), 공 정선기(3), 마늘속선별기, 육묘파종기(10), 파이프정형기, 파이프정형기, 달랑기(2)	5,000원
구입단가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 트랙터용 : 농두원조성기(10), 구굴기(2), 축조시비기(2), 반전집조기, 부분경운작파기, 원판쟁기(8면(4)), 땅속적출수확기, 전가지파쇄기(4), 휴림피복기(2), 보리베토기, 로타베이터(3), 고구마수확기(2) • 승용관리기용 : 볼스프레이어, 이앙장치 • 경운기용 : 마늘파종기, 마늘복분기 • 자주형 : 승운경운기, 삼포제초기(5)	10,000원
구입단가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 트랙터용 : 심도파쇄기, 퇴비살포기(2), 하베스타(2), 액비살포기 • 자주형 : 승용관리기	15,000원
구입단가 1,000만원이상	• 트랙터용 : 통반파쇄기, 시가베일라, 콤팩트기, 레이저근면기, 「스프레이어」서(2) • 자주형 : 클리버, 농용굴삭기(2), 목재파쇄기, 농용로터(2), 승용이앙기(2)	20,000원

아산만평



아산은 하키 메카, 외교와 홍보도 만점 이제 아산하키를 위한 전용구장을 준비 할 때

지난달 충북 제천에서 개최됐던 제 48회 전국소년하키선수권 대회에서 아산시청 하키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아

산중, 아산고, 한울중이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산이 하키의 메카임을 다시한번 확실히 증명, 아산 하키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전국을 호령했다. 아산시청 하키팀은 결승전을 3:2, 목포시청 4:3으로 격파하며 이어 KT와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우승의 단맛을 만끽했다.

아산시가 하키의 맹주로 자리잡는 데

에는 중·고·일반의 두터운 하키팀을 보유하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아산중과 한울중, 아산고와 한울여고에 남·녀 중·고팀을 보유하고 있고 순천향대와, 아산시청에 남녀 하키팀을 육성하고 있어 두터운 하키팀을 이루고 있다.

아산의 하키는 외교와 홍보도 만점이다. 아산고 하키팀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도야마 석동고등학교)과 대만(창화현 하키팀)의 하키팀을 초청하여 방학기간을 동안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달에는 아산시청 하키팀이 대만 하키팀을 초청 함께 훈련을 하기

로 계획돼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맨십 차원의 상호 선의의 경쟁과 정보교류, 기술교환 뿐만 아니라 서로의 국가에 대한 이해하고 높여 나가고 우정도 다져나가는 민간외교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하키와 수영종목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할 정도의 높은 수준과 실력을 가지고 있다. 아쉬운 점은 하키팀이 마름대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시급하다'면서 '배교를 활용한 전용구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붉은색 유니폼의 아산시청하키팀 아재 아재! 아재!

복합민원도 신속·정확·친절하게

시민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 아산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친절도 92%를 전체 만족도도 88%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고객의 만족도를 더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 창구직원민원외에 3개이상의 부서가 함께 협의후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도 빠르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복합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2005년도 상반기 복합민원 처리 건수가 2,900여건에(1일평균 20건) 달하고 있고 시의 개발 여건들을 고려 할 때 앞으로도 업무량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개선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무통합심의회는 지금까지 민원외래과에 실무종합심의회를 두고 서면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민원처리를 해오던 방식에서 부시장을 정점으로 관련 부서장이 부서장실에서 함께 업무를 협의토록 했다.

또한 복합민원실 접수되면 접수담당 부시장님의 선결후 처리토록하여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심의회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관심도 높이면 시의, 종의 결정도 빨라져 신속한 민원처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복합민원을 진된 처리 할 수 있는 관련담당을 신설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편리하고 빨라지는 아산시의 복합민원처리를 실감 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다.



사진으로 느끼는 아산



▲ 농촌이 이런 곳이구나(어린이 농촌체험)



▲ 무인헬기가 벼해충 없애줘요



▲ What time is it now? 음~

영광스런 아산시민대상 추천 받습니다

시는 2005년도 시민의 날이 가까워 오며 따라 제11회 아산시민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했다.

예년과 같이 효행, 교육문화, 사회봉사, 지역개발, 체육부문을 5개분야로 나누어 시상하게 될 아산시민대상은 행단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시민이 귀감이 되는 사람중 추천당시 아산시에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효행부문은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고 동기간에 우애가 돈독하며 이웃간 화목하여 주위의 칭송을 받는 덕망있는 사람, ▲교육문화부문은 육영사업, 문화

예술사업, 전통민속 보존전승, 지방분권진흥분야에 이바지한 사람을 추천 받고 있다.

또한 ▲사회봉사부문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하여 봉사 하였거나 여성의 자위향상, 청소년 선도등에 뚜렷한 실적을 쌓아 올린 사람 ▲지역개발부문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공헌 하였거나 첨단기술 연구발전 및 생산성 증대등으로 시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체육부문은 체육발전을 위하여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이론적 연

구의 성과를 거두었거나 국·내외 경기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선양 등 체육진흥에 이바지 한 사람을 추천 받는다.

이와함께 아산시 기관·단체장이나 전문대학이상의 총(학)장, 아산시청 국장, 읍면동장, 지역주민 10인이상 등의 추천을 받으면 되고 추천서는 아산시청 총무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준비되어 있으며 접수는 시청 총무과에서 9월 8일까지 받는다. 다만 추천일 현재 아산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기 수상한 사람등 추천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천시 주의가 요구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면 된다.(www.asan.go.kr)

20만 시민의 손으로 아산이 깨끗해 진다

범 시민 아산사랑 운동, 쾌적한 스마트 도시건설 함께 합시다



시에서는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4월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아산사랑 범 시민 대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9월중 범 시민

대청소의 날(9월 9일 금요일)에는 15:00부터 "청결분담책임지역"을 지정 받은 관내 266개 각급 기관, 사회봉사단체, 학교, 기업체와 정 시민이 함께 참여토록 유도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산시 사람 실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토록 하고, 장마철 이후 저지른 해진 산과 들, 하천, 관광지 등을 찾아 남겨진 쓰레기를 모두 수거, 쾌적한 스마트 도시 건설은 물론

추석절을 맞이하여 찾아오는 관광객 및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아산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미 시행중인 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 학교등에 지정된 「지역 청결책임분담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청결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아산사랑"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읍면동 소식

탕정면 새마을지회 태극기 달기



탕정면새마을협의회(회장 이상무, 김점숙)는 관복절을 맞이하여 나라사랑운동으로 태극기 달기를 실시하였다. 선문대 입구 3Km 도로변 양쪽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하였다.

이상무 김점숙회장은 새마을운동이 침체되어있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새마을가족 마음속에도 긍지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탕정면 주부명예기자 심 춘 근)

『제55회 둔포면민의 날』행사 개최
둔포면민 화합잔치를 열어 하나로 뭉쳤다

둔포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지난 8월 15일 둔포 초·중·고등학교에서 『제55회 둔포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1만1천여 둔포면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살기 좋은 둔포건설을 위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는 주민과 기업체, 동창회들이 참가해 둔포면내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잔치와 함께 축구동호회

의 축구대회, 학생부·상년부의 육상경기, 화합경기인 줄다리기, 간썰놀이, 공물리기 등 다양하게 전개 됐다.

특히 어른 공경의 마음을 전주민이 함께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경로잔치는 둔포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만대 어르신들 식사를 대접하고 강당에서 아산실버학단의 연주 및 둔포여성노인회의 노래 공연과 연예인들 초청하여 대규모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드렸다.

둔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결승전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 된 행사에 후원의 손길이 채도 하였고, 특히 둔포면 소재 기업체인 하이코리아(주)와 동성제약(주)에서는 관내 1,000여명의 어르신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 화합경기(줄다리기)

한편 둔포면은 21세기 서해안 개발로 유망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인근의 천안시, 경기도 광명시 등 인근 지역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둔포면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모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수면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제55회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1만1천여 둔포면

민의 마음과 힘을 합쳐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둔포면으로 탈바꿈하여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아산시 행정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둔포면 주부명예기자 서 정 애)

읍면 주민자치센터 헬스! 헬스!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8월 3일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한 헬스장을 개장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은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2층에 50여평을 마련하여 정문헬스장을 능가하는 다양한 건강기구를 준비하고 있어 이미 152명의 회원들이 등록, 이용하고 있을 만큼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닝머신 4대, 벨트마사지기 1대, 싸이를 2대 등 10개 종류의 운동기구 15대가 마련돼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저녁 8시까지 운영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8월 19일 1차 회원등록을 마감했고 3개월마다 재등록을 하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문을 여는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 확실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읍면 주부명예기자 오 인 희)



유관기관 소식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 국가청렴위원회가 하는 일

-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방향의 수립과 평가
- 부패신고접수·처리와 신고자 보호·보상
- 부패유발 법규와 구조적·고질적 분야의 제도개선
- 투명사회협약의 지원과 민간 협력사업 전개
- 기업윤리경영의 지원과 부패방지 교육, 홍보, 국제협력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부패통제체제 확립 등

□ 부패행위 신고안내

- 신고자: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때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대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 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해를 가하는 행위, 상가행위 및 그 음해를 감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 신고방법: 우편·직접방문(110-733)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7층 / 상담전화 - 02)1398, 인터넷 이용 - www.kicac.or.kr

번개 칠 땐 인터넷을 하지 마세요!!

아산전화국에서는 고객님들의 소중한 자산보호를 위해 낙뢰 예상시 안내방송을 시행 중에 있으며, 불완전 시더라도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보호를 위해 꼭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낙뢰시 PC, 초고속인터넷 관리 요령

- 우선 PC의 전원은 끄세요.(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모뎀의 전원코드를 전화(ADSL)선을 뽑으세요
- ※ 낙뢰 이후 전선선 등을 다시 찾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및 지원제도 안내

□ 참전유공자란?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퇴직하 군함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참전유공자 지원 신청은?

- 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보존(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www.mgva.go.kr)게재
- 나. 참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참정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 발행)

- 다. 사진 1매(3cm X 4cm) - 참전유공자증 발급을

- 라. 주소지 관할 보존(지)청에 등록신청

- 등록기간: 제한 없음(수시 등록 가능)

□ 참정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 가. 대통령령의 참정유공자증서 교부
- 나. 참정명예수당
- 시급대상: 참정유공자시급대상자로서 65세이상자
- ※ 전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참정재일학도의용군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지급대상자는 제외
- 지급금액: 월 6만원
- 다. 보존명원 본인부담 전보비 60% 감면
- ※전공 약 400개 양·한방병원 감면전료 실시(병원명단은 우리청 홈페이지 참조)
- 라.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 마. 참정유공자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 바. 참정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15만원) 지급
- 사.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면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안내

□ 용자대상업소

- 식품제조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위생시설(HACCP 적용 포함) 개선
- 한포특색음식(전통음식) 육성에 필요한 시설개선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구입
- 화장실 시설개선

□ 용자신청 제외 대상업소

- 연강 매출액이 300여만 이상 되는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란, 화장실 시설개선지급은 예외로 함)
- 시장이 용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계획서, 서약서

□ 용자금액 및 상환조건

- ▷ 시설개선사업 중상안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 자금의 대출금리: 연 3%
- ▷ 용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상환
- ※용자재원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므로 우리시 배정잔액 79백만원입니다.
- ※기타 문의: 아산시 민원위생과 (540-2165 담당-민승자)



아산시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인내·열심



농업인정보화 교육

- 일시: 2005. 9. 26 ~ 9. 30(5일간)
- 장 소: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실
- 인원: 28명(선착순 접수)
- 내 용: 한글, 문서작성, 인터넷검색, 메일보내기, 도매시장 가격정보, 농산물 가격정보, 도매시장 사이트 이용, 종합사이트 검색, 출하지원시스템 활용
- 문의전화: 경영정보담당 ☎ 544-5959

이유식 교실 운영안내

아산시보건소에서는 임신부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이유식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및 단계별 이유식 실습을 통하여 올바른 이유식으로 아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래-

- 일시: 매월 4째주 수요일 15:00 ~ 16:00
- 대상: 임신부, 영유아를 둔 부모
- 내 용: - 단계별 이유식 조리법 실습 및 지식
- 영아의 신체발육에 따른 이유식 교육 및 영양상담
- 이유식 책자 제공
- 문의전화: 건강증진담당 ☎ 540-2541

2005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정리의간: 2005. 8. 29 ~ 10. 9(42일간)
- 조사자: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
- 조사방법: - 1차: 주민등록지에 대하여 통(리)·반별 전수조사 실시
- 2차: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차 사실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람으로 추정되는 자 등

국민생활관 제4기 수강생 모집안내

- 모집기간: 2005년 9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
- 접 수 처: 아산시울림복지국민생활관(540-2591, 2249)
- 등록준비물: 수강료(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수강신청서
- 교육기간: 2005년 10월~12월(스포츠교실은 1개월)

[교양·문화 강좌]

과목	인원	요일	시간	내 용
글쓰기 특강	30	월	10:00-12:00	어린이 글쓰기, 독서지도
부모자녀 대화법	20	월	10:00-12:00	부모자녀 대화법, 자녀의 창의력인 학습지도
생활도자기	25	수, 목	10:00-12:00	작업 교본 도자기
비즈공예	20	월, 목	10:00-12:00	3월 3주째 4월 1주째 5월 1주째
서예	25	화, 목	14:00-16:00	문자구성 및 작품쓰기
생활영어(초급)	20	월, 수	10:00-12:00	기초영어 이론 및 회화
생활영어(중급)	20	월, 수	14:00-16:0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일문일어	20	화, 목	10:00-12:00	생활영어 이론 및 회화
중국어	20	수, 금	10:00-12:00	중국어 이론 및 회화
시강화	20	월, 화	10:00-12:00	유화기초, 중급화, 경음화
역간공예	20	화, 목	14:00-16:00	보석화, 다과상, 벽화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 신청기간: 2005. 9. 1 ~ 9. 10(10일간)
- 신청방법: - 인구주택공사 홈페이지(www.census.go.kr) 등록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가능
- 조사요원 신청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의 구분없이 일괄 신청
- 채용기간:

구 분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채용일수	29일	24일	19일
교육 등 준비	11일(9.10월중)	6일(10월중)	1~2일(10월중)
준비조사	3일(10.29-10.31)	3일(10.29-10.31)	2-3일(10.29-10.31)
본조사	15일(11.1-11.15)	15일(11.1-11.15)	15일(11.1-11.15)
- 수당지급: 수행업무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합격자 발표: 9월 21일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시에서 소회 가능 또는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납부제도 변경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안내

- 재산세 변경 내용
 - ①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조정: 매년 6. 30 ~ 5. 31
 - ② 세부담상한제 실시: 당해 토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50% 상한선 설정
 - 납부기간: 토 변경
 -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10월: 납기10.16~30) → 토지분 재산세(9월: 납기9.16~30)
 - 주택분 재산세 분할납부 → 7월(1기분: 7.16~31), 9월(2기분: 9.16~30) 각각 1/2씩 분할 납부
- 종합부동산세 신설안내
 - ①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납부: 매년 12. 1 ~ 12. 15
 - ②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 소유자별 전국합산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소유자별 전국합산한 내대지등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 소유자별 전국합산한 사업용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 ③ 세율: - 주택분 1~3%
- 토지분: 종합합산대상(내대지 등) 1~4%, 별도합산대상(사업용토지) 0.6~1.6%

아산시 수돗물 수질검사결과 안내

우리시 수돗물은 매월 정수장 및 15인 이상된 수용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판정된 안전한물입니다. 병원성미생물 증식억제를 위해 0.2mg/L 이상의 잔류염소 농도를 유지도록 수돗물에 염소소독을 하고 있으며, 염소소독 냄새는 30분~1시간 후에는 휘발되어 인체에는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 수돗물 이렇게 마시면 좋아요.

- 물의 온도를 4~8℃ 정도로 유지하면 음존산소량도 증가하고 청량감도 있어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 물을 받은 후 20~30분간 놓아두었다가 먹습니다. 받은 물을 깨끗한 곳에 놓아두면 염소냄새가 없어지고 공기중의 산소가 녹아들어 청량감이 좋아집니다.
- 사기나 유리로 된 용기에 보관하여 먹습니다.
- 끓여서 먹습니다. 끓인 물은 휘발성물질과 염소물질 등이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옥수수, 보리차, 결명자를 넣어 끓여 마시면 중금속 및 화학물질 등을 70~90% 흡착하여 물맛도 좋게 하고 수인성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기 준	검사결과			
		정수장	대청	용화	노후관수도꼭지
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분변성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탁도	0.5NTU이하	0.04	0.06	0.12	0.08
철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망간	0.3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아연	1mg/l 이하	불검출	0.003	불검출	불검출
동	1mg/l 이하	불검출	불검출	0.003	0.002
염소이온	150mg/l 이하	9	10	8	10
유리잔류염소	4.0mg/l 이하	0.78	0.56	0.20	0.42
기타 무기물 및 유기물성분 (44개항목)	기준치 이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	-	-	-
판 정	기준에 적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아산시, 2005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아산시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통지역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읍·면지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 사업기간: 2005년 10월 4일 ~ 2005년 12월 23일
- 사업비: 174,483천원
- 선발인원: 88명
- 주요사업: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국토공원화사업)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주 3회 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할 자 ▲청년실업대책사업 외에는 1세대 2인 이상을 비롯 정기소득이 있는 자 및 배우자 ▲농지 0.5ha초과 경작자 및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급 수령액이 3개월 평균 410천원초과 수급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성득익이 있어 있는 자
- 준비서류: 공공근로사업신청서(시, 읍·면 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아산시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하는 구직활동확인서, 휴학증명서(해당자) 등을 준비
- 기타문의: 아산시청 지역경제과(540-2047~8)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당림미술관에서 화폭의 향기를...



▲ 김우문 - 신바람



▲ 전중무 - 휴일-夏

아산시 송악면 외암골에 자그맣게 자리잡은 당림미술관! 앞 내에는 여름내 개구쟁이들이 송사리 쫓던 곳, 뒷자락엔 소나무 그늘, 오묘조목 동네 사람들이 길러놓은 옥수수, 콩, 고구마랑 함께 화폭의 향내가 술술 물어 난다.

오시는 길



한여름 매미소리가 잠잠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오는 가을의 문턱에서 당림미술

관 사람들이 분주 마음으로 종종 걸음을 치고 있다. 개관 8주년을 기념하는 시골·총남작가 초대 교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여름 음악회의 진한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서울의 조병현 화백, 대구의 강우문 화백을 비롯한 원로작가와 중진작가 열두분의 회화 작품과 천안, 아산, 공주시에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충청지역 화가 스무 분의 회화, 도예, 조각품들이 전시된다.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맘을 낸다면 8월27일(토)부터 9월11일(일)까지 우리 고장에서 예술의 빛깔을 통해 우러나오는 미술작품의 진수를 마음껏 느끼고 무아의 세계로 젖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당림미술관! 우리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이 미술관은 언제부터 그곳에 자리하고 매년 이렇게 고고한 예술의 향기를 외롭게 자아내고 있을까?

이곳은 우리나라 화단의 큰 어른이며 우리고장의 자랑 이종무 화백의 손길을 정성스럽게 타고 있다. 당림미술관은 고인이 되신 이종무 화백이 1997년 6월 설립하여 여생을 마무리하기까지 예술혼을 불사르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부친의 예술혼과 뜻을 그대로 이어 받은 이경렬 관장이 당림미술관의 지킴이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개관 8주년을 맞으면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우리고장에 다양한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예술적 향기와 빛깔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삶에 채찍질은 꿈을 전해 주고 싶다고 초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 박기태 - 女人

팝과 함께라면 빗줄기도 리듬 속으로



8월 신정호에 장대 같은 빗줄기가 호되다.

서울 팝소케스트라를 초청한 관계자는 비가림 설치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정도... 그도 삼시 우뢰와 같은 아산시민들의 막수 갈채에 이마의 땀을 슬그머니 훔쳐 내리며 입가엔 옅은 안도의 미소를 띄우고, 무대는 오페라가수 콕은주의 열창! 열창! 열창! 아산문화시민의 뜨거운 박수에 오케스트라는 벌써 앵콜 트로트를 연주하면서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됐다.

8월의 신간 및 추천도서

■ 일반도서

- 존재의 심리학(아브라함H. 매슬로/문예출판사)
- 영영이별 영이별(김병아/창해)
- 히스토리언(엘리자베스코스토바/김영사)
- 성장과 혁신(클레이튼 크리스텐슨/세종서적)
- 카본다운 히로시마(스티븐워커/황금가지)
- 워렌버핏의 가치투자 전략(티머시빅/비즈니스북스)
- 사람이 꽃피는 민들레 국수집(서영남/더북클럽)

■ 어린이도서

- 한바탕 꿈이로다(김병규/세상모듬책)
- 49가지 칭찬 동화(이진우/동화사)
- 빛나는 보물 우리 사할(우리누리/해담하루스중앙)
- 오늘은 월요일(에릭칼/문테소리CM)
- 나비가 전해 준 희망(메트릭사플리코/베를록)

「아리랑」 가장 아름다운 가락, 세계인의 느낌으로...